

대학생의 음란물 노출력과 성태도 및 성경험간의 상관성 분석*

김은만¹⁾ · 유수정²⁾ · 송미령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근래들어 우리사회는 성에 대한 노출시기가 빨라지면서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안전한 성행동의 실천은 매우 낮아 성과 관련된 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개방되어가는 성문화에 비하여 성교육이나 성보호 제도가 미비하여 성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성폭행의 경우 2001년 6,751건에서 2010년 18,220건으로 10년 만에 2.7배로 증가하였다(National Police Agency, 2012). 성행동은 성과 관련된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문제로서 성병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의 성매개성 감염, 자궁경부암 등의 성 관련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 성경험 시기, 특히 어린 나이의 첫 성경험은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Ma et al., 2009), 낙태, 불임, 영유아기 및 미혼모, 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미혼여성의 낙태율은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4.1명에 이르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시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중학교 때지만(Sohn & Chun, 2005) 학업 등으로 인해 억압되다가 대학생이 되면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행동에 제약울 덜 받게 된다. 대학에 들어와

이성교제가 본격화되고 이성간의 실질적인 성행위가 증가하며(Lee, 2004), 대학교 2-3학년때 성경험율이 가장 높다(Ho, 2009). 더불어 대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이 41.6%에 달한다는 보고(Choi & Ha, 200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성관련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임(Larsson, Tyden, Hanson, & Haggstrom-Nordin, 2007), 성행위 관련요인(Rink, Tricker, & Harvey, 2007), 음란물 노출과 성태도(Choi, 2009; Kim, 2010), 대중매체의 선정성과 성행동(Moon, 2012) 등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근래들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정적인 음란물 노출이 증가되고 있는 바, 대중매체의 선정성은 성충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충동과 성행동은 매우 높은 인과관계가 있어(Moon, 2012) 성관련 연구에서 음란물 노출력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 음란물 노출력은 이후 성행동의 중요한 촉발인자로 알려져 있으며(Choi, 2009; Moon, 2012), 음란물을 접한 후에는 음란한 장면에 대한 연상작용으로 새로운 음란물을 더 추구하게 된다(Nam & Lee, 2002). 따라서 음란물을 일찍 접할수록 음란물 중독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음란물 노출력과 성경험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이용자 수가 2000년 1,904만 명에서 2010년 3,701만 명이 되었으며(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0), 2009년경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은 과거의 비디오나 텔레비전과는 달리 자신의 방에서 음란물에 쉽게 접근

주요어 : 태도, 성경험, 성행동

* 이 논문은 2012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2-0249)

- 1)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2)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3)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songmr@hoseo.edu)

접수일: 2012년 12월 25일 1차 수정일: 2013년 1월 18일 2차 수정일: 2013년 2월 8일 게재확정일: 2013년 2월 13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음란물에 손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인터넷의 급속 확산기에 초, 중, 고등학교시절을 보낸 현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란물 첫 노출시기와 종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성태도와 성행동에서의 차이 및 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성건강 프로그램의 방향과 구성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지각된 행위통제와 성행동 의도가 성행동의 34% 설명력을 가진다는 보고가 있으나(Lee, 2004), 이는 성행동에 미치는 대중매체나 음란물의 효과에 대해 간과된 측면이 있다. 또한 Kim, Moon과 Kang (2011)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및 환경적인 변인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성행동의 중요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성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인간의 태도 및 의도는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시발점으로서 성태도 및 의도는 성행동의 중요 영향요인으로 예측된다(Brcar & Zvezdna Dernovsek, 2009). 대학생의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경험이 많으며(Ho, 2009), 경로분석을 통해 성태도는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으므로(Kim, 2010) 성문제 분석에서 성태도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성은 그 시대의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문화 등을 잘 반영하면서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사회전체의 바람직한 성문화를 위한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참여 및 공유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캠페인이나 홍보, 교육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성관련 중요변수들의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성행동은 인간의 감정을 공유하고 후세대를 양산하기 위한 중요한 기전으로 인간사회의 중요요소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성의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성건강 증진을 통해 개인적 및 사회적 생산성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의 건강문제에 해결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성과 관련된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성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음란물 노출력과 성태도 및 성경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음란물 노출력을 분석한다.
- 대상자의 성태도와 성경험을 분석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란물 노출력에 따른 성태도와 성경험의 차이를 분석한다.
- 음란물 노출력과 성태도 및 성경험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용어 정의

● 음란물 노출력

음란물은 오로지 성적 자극만을 위해 만들어진 매체(Shim, 2010)로서 본 연구에서 음란물 노출력은 선행연구(Shim, 2010)를 참고하여 음란물 노출 시기와 음란물 유형을 포함하였다. 음란물 노출 시기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대학 등 학제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음란물 유형은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만화, 소설, 잡지), 영화와 비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터넷 동영상, 인터넷 배너와 스크 메일 등을 포함한다.

● 성태도

성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인지적인 판단이나 반응(Kim, 2010)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생각(쾌락적, 유희적인 성), 혼전 순결, 결혼관, 성허용성, 동성애, 낙태에 대한 허용성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 성경험

성경험은 성교 경험으로(Chang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과 1회 이상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성관계 상황의 이해를 위해 첫 성경험 시기, 첫 성경험 대상, 첫 성경험 장소, 성매매 경험, 성행위 시의 피임여부 및 성경험 후 느낌 등을 포함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란물 노출력과 성태도 및 성경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가보고식의 질문지를 이용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충청도와 강원도에 소재한 3개 4년제 대학의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학보건소와 단과대학별 휴게공간 등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설문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터닝 교양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교과목 커뮤니티 등의 사이버 공간에 연구의 목적과 과정 및 설문지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설문의 목적을 이해하며 설문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의

산정은 G*Power program (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음란물 노출력에 따른 성태도 및 성경험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ANOVA 분석에서 중간보다 작은 effect size 0.20, $\alpha=0.05$, 집단수 최대 5일 때 검정력 0.9로 계산한 결과 대상자 수는 총 39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410명의 참여자 중 설문지의 내용이 불충분한 25명을 제외한 385명(93.9%)을 최종 연구분석에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검정력은 0.896이었다.

연구 도구

● 일반적 특성 및 음란물 노출력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 종교, 주거형태, 평균 용돈 등을 포함하며, 음란물 노출력은 음란물에 노출된 시기, 노출된 음란물 종류를 포함하였다.

● 성태도

본 연구에서 성태도 측정도구는 국내 선행연구(Seong, 1996)에서 제작 사용된 도구를 Ho (2009)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태도에 대한 문항은 총 42개 문항이며 성태도에 관한 하부 요인은 성에 대한 생각(쾌락적, 유희적인 성) 11문항, 혼전 순결 7문항, 결혼관 7문항, 성허용성 6문항, 동성에 5문항, 낙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5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문항 중 13, 14, 15, 16, 17, 18, 21, 22, 24, 37, 38번은 역코딩하여 환산하여 이용하였다. Ho (2009)의 연구에서 하부영역별 Cronbach's α 값은 .81에서 .93까지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64에서 .95로 나타났으며, 도구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5이었다.

● 성경험

본 연구에서 성경험은 특정 대상과의 성교를 의미하며 성관계 여부를 묻는 문항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첫 성경험 시기, 첫 성경험 상대, 첫 성경험 장소, 성매매 경험 여부, 성경험 시 피임 여부, 성경험 후 느낌 등에 대한 추가 문항에 대한 답변을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학교보건소와 단과대학별 휴게 공간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

한 학생이 방해없이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여 설문지 수거함에 넣게 하였다. 이러닝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시험일에 별도로 마련한 설문지 수거함에 개별적으로 넣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시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은 대상자의 질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지가 완성된 후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이었다. 3인의 연구보조원은 모두 간호학과 학생들이었으며, 설문조사 전에 구조화된 자료수집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료수집방법을 교육하여 자료수집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자료 분석

Win-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란물 노출력을 빈도와 평균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성태도 평균을 분석하고 성경험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성경험은 성경험유무를 빈도분석하고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첫 성경험 시기, 성경험 상대, 성경험 장소, 성매매 경험, 성경험 시 피임여부, 성경험 후 느낌을 빈도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및 음란물 노출력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으며, 음란물 노출력에 따른 성경험 유무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음란물 노출력 및 성태도와 성경험 간의 관련성을 파이 및 크레이머 V (p)와 Kendall의 tau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기관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부터 승인을 받았으며(IRB-20120001),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참여 시에 제공되는 사례와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연구참여자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참여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진행 과정동안 처음 설명대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상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에 대해 사례를 하였으며, 연구의 설문과정에서 설문 응답자가 불쾌하게 느끼지 않도록 설문 수집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란물 노출력

본 연구대상자 중 51.7%가 남학생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45.5% 이었고, 1학년 21.8%, 2학년 26.5%, 3학년 30.4%, 4학년 21.3%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사회/인문계열 30.9%, 자연/공과계열 25.5%, 보건(과학)계열 21.0%, 한의계열 13.0%, 예술체육계열 9.6%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48.0%는 자택에서 생활했으며, 월 생활비가 40만원 미만인 경우가 63.9% 이었다. 첫 음란물 노출시기는 중학생 45.7%, 초등학생 36.6%, 고등학생 14.3%, 대학생 3.4% 순이었으며, 노출되었던 첫 음란물의 종류는 영상물 33.2%, 인터넷 동영상 27.8%, 인터넷 배너나 스팸메일 25.7%, 서적 7.5%, TV프로그램 5.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성태도 분석

본 연구대상자의 성태도는 평균 2.98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 중 낙태 허용도 3.25점, 자유 결혼관 3.16점, 혼전 순결 허용도 3.08점, 성에 대한 생각(쾌락, 유희적인 성) 2.98점, 동성애 허용도 2.90점, 성 허용성 2.79점 순으로 나타나 낙태에 대해 가장 개방적면서 성허용성 측면에서는 가장 보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 중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성태도($t=6.69, p<.001$)는 차이가 있었으며 그 하부 영역 중 쾌락, 유희적 성($t=8.66, p<.001$), 혼전 순결($t=7.06, p<.001$), 성 허용성($t=10.16, p<.001$), 동성애($t=-3.39, p=.001$), 낙태($t=2.59, p=.010$) 등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성태도 뿐 아니라 쾌락, 유희적 성, 혼전

Table 1.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 and Intercourse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N=385)

Variables	Class	n	%	Sexual attitude		Intercourse experience		χ^2 (p)
				M (SD)	t or F (p)	Yes n(%)	No n(%)	
Gender	Male	199	51.7	3.00 (.40)	1.379	124 (77.5)	75 (33.3)	73.044
	Female	186	48.3	2.95 (.41)	(.169)	36 (22.5)	150 (66.7)	(<.001)
Religion	Yes	175	45.5	2.89 (.45)	-3.785	75 (46.9)	100 (44.4)	.223
	No	210	54.5	3.05 (.36)	(<.001)	85 (53.1)	125 (55.6)	(.678)
Year in university	1st year	84	21.8	2.85 (.37) ^a	4.154	19 (11.9)	65 (28.9)	32.813
	2nd year	102	26.5	2.99 (.41)	(.006)	33 (20.6)	69 (30.7)	(<.001)
	3rd year	117	30.4	2.99 (.39)	(b>a)+	57 (35.6)	60 (26.7)	
	4th year	82	21.3	3.06 (.44) ^b		51 (31.9)	31 (13.8)	
Major	Humanities/social science	119	30.9	2.95 (.41)	2.278	58 (36.3)	61 (27.1)	28.491
	Natural science/engineering	98	25.5	2.92 (.41)	(.060)	48 (30.0)	50 (22.2)	(<.001)
	Arts and physical education	37	9.6	3.04 (.51)		23 (14.4)	14 (6.2)	
	Health science	81	21.0	2.98 (.35)		19 (11.9)	62 (27.6)	
	Oriental medicine	50	13.0	3.11 (.39)		12 (7.5)	38 (16.9)	
Type of residence	Home	185	48.0	2.93 (.44) ^a	7.037	69 (43.1)	116 (51.6)	15.529
	Boarding room	100	26.0	3.11 (.37) ^b	(.001)	58 (36.3)	42 (18.7)	(<.001)
	Lodging, Dormitory	100	26.0	2.94 (.37) ^c	(b>a,c) ⁺	33 (20.6)	67 (29.8)	
Pocket money(won)	<400,000	246	63.9	2.96 (.38)	-1.207	82 (51.3)	164 (72.9)	18.979
	>400,000	139	26.1	3.01 (.46)	(.228)	78 (48.8)	61 (27.1)	(<.001)
Timing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Elementary school	141	36.6	3.09 (.40) ^a	7.080	66 (41.3)	75 (33.3)	10.237
	Middle school	176	45.7	2.94 (.38) ^b	(<.001)	77 (48.1)	99 (44.0)	(.016)
	High school	55	14.3	2.84 (.41) ^c	(a>b,c)+	15 (9.4)	40 (17.8)	
	University	13	3.4	2.85 (.55)		2 (1.3)	11 (4.9)	
Type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Books	29	7.5	3.03 (.33)	1.577	13 (8.1)	16 (7.1)	10.566
	Videos	128	33.2	2.97 (.45)	(.180)	56 (35.0)	72 (32.0)	(.032)
	TV programs	22	5.7	2.80 (.42)		5 (3.1)	17 (7.6)	
	Internet films	107	27.8	2.96 (.39)		54 (33.8)	53 (23.6)	
	Internet banners, spam	99	25.7	3.03 (.38)		32 (20.0)	67 (29.8)	

⁺ a,b,c : Scheffe test (Different alphabet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순결, 성허용성, 동성애, 낙태 등에서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연구대상자의 성경험 분석

연구대상자 중 41.6%(160명)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첫 성경험 시기는 대학교 이후 58.1%, 미성년 시기인 초·중·고등학교 때가 41.9%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88.1%가 첫 성관계 상대가 '당시 교제상대' 이었으며, 주로 성관계를 하는 장소는 숙박업소 56.3%, 본인 또는 상대의 자취/하숙방 36.3% 등으로 나타났다. 성경험 대상자 중 20%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관계 시 피임은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 경우가 48.1%, 항상 하는

경우가 43.1%, 거의 안하는 경우가 8.8%였다. 성관계 후 62.5%는 긍정적 느낌을, 25.6%는 양가감정을, 6.9%는 아무 감정도 없음을, 5.0%는 부정적 느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란물 노출력에 따른 성태도와 성경험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는 종교($p<.001$), 학년($p=.006$), 주거형태($p=.001$), 음란물 노출 첫 시기($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가 없을 때 성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을 한 결과 4학년이 1학년보다 성태도 점수가 높았다. 자취를 하는 경우가 자택 및

Table 2. Intercourse Experience according to Subcategories of Sexual Attitudes

Sexual attitude	Total (n=385) M (SD)	Intercourse experience		t (p)
		Yes (n=160) M (SD)	No (n=225) M (SD)	
Sex as pleasure & amusement	2.98 (.58)	3.27 (.58)	2.78 (.50)	8.66 (<.001)
Chastity before marriage	3.08 (.69)	3.35 (.57)	2.89 (.69)	7.06 (<.001)
Outlook on marriage	3.16 (.63)	3.16 (.70)	3.16 (.57)	0.04 (.966)
Openness to sexual relationship	2.79 (.61)	3.13 (.57)	2.55 (.51)	10.16 (<.001)
Openness to homosexuality	2.90 (1.15)	2.67 (1.26)	3.07 (1.05)	-3.39 (.001)
Abortion	3.25 (.79)	3.37 (.83)	3.16 (.75)	2.59 (.010)
Total	2.98 (.41)	3.13 (.38)	2.87 (.40)	6.69 (<.001)

Table 3. Analysis of Intercourse Experienc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Intercourse experience (n=385)	Yes	160	41.6
	No	225	58.4
Time of first intercourse experience	Minority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67	41.9
	Majority (after university)	93	58.1
Partner in first intercourse experience	Dating partner	141	88.1
	A one-time meeting partner	2	1.3
	Known partner (friend so on)	11	6.9
	Other	4	2.5
Place of first intercourse	Missing	2	1.3
	Boarding house room	58	36.3
	Motel	90	56.3
Prostitution experience	Other	12	7.5
	Yes	32	20
Contraception	No	128	80
	Yes	69	43.1
Feeling after intercourse	Sometimes	77	48.1
	No	14	8.8
Feeling after intercourse	Positive feeling	100	62.5
	Negative feeling	8	5.0
	Ambivalence	41	25.6
	No feeling	11	6.9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s, Sexual Attitude and Intercourse Experience

	The timing of first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The type of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
	τ or λ (ρ)	τ or λ (ρ)	τ (ρ)
The type of obscene material	.129 (.892)		
Sexual attitude	-.203 (<.001)	.030 (.431)	
Intercourse experience	.163 (.017)	.166 (.032)	-.264 (<.001)

하숙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성태도 점수가 높았고, 초등학교에 처음 음란물에 노출된 경우가 중, 고등학교 때 노출된 경우보다 성태도 점수가 높았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성별($p<.001$), 학년($p<.001$), 전공($p<.001$), 주거형태($p<.001$), 월생활비($p<.001$), 음란물 노출 첫 시기($p=.016$), 첫 음란물 종류($p<.032$)에 따라 성경험 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체 성경험자 중 남학생이 77.5%이었고, 여학생은 22.5%로 나타났다. 1학년의 11.9%, 2학년의 20.6%, 3학년의 35.6%, 4학년의 31.9%에서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경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전공에 따라서는 성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인문사회계열이 36.3%로 가장 높은 반면 '없다'는 응답자는 보건(과학)계열에서 27.6%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 자취가 36.3%인 반면 성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대상자의 18.7%만이 자취라고 보고하여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성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월수입을 한국 대학생 월 평균 수입(Albamon, 2011)에 근거하여 4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월 평균 수입에 따라 성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40만원 이상군에서는 성경험이 있다(48.8%)는 응답이 없다(27.1%)는 응답보다 많았다. 또한 첫 음란물 노출 시기의 경우 성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이 초등학교(41.3%)와 중학교(48.1%)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하여 성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대상자의 분포와 차이를 보였다. 첫 음란물 노출 종류는 양 군 모두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고가 높았다(Table 1).

음란물 노출력, 성태도, 성경험간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음란물 첫 노출 시기와 유형 및 성경험 유무와 성태도의 관계를 Kendall의 tau로 분석한 결과, 음란물 노출 첫 시기($p<.001$), 성경험 여부($p<.001$)가 성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음란물 노출력과 성경험 여부 간의 관련성을 파이 및 크레머 V (p)로 분석한 결과 첫 음란물 노출 시기($p=.017$)와 첫 음란물 노출 종류($p=.032$)는 성경험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대상자의 첫 음란물 노출 시기는 중학생이 45.7%, 초등학생이 36.6%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때 처음 노출된 학생이 48.1%, 중학교 때 처음 노출된 학생이 32.8%인 Shim (2010)의 연구에 비해 초등학교 때 노출된 비율은 낮으나 중학교 때까지 노출된 총 비율은 82.3%와 80.9%로 거의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첫 음란물 노출 형태에 있어서 인터넷 동영상이 27.8%, 인터넷 배너나 스팸메일이 25.7%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노출이 53.5%, 영상물이 33.2%, TV프로그램이 5.7%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노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대만, 중국의 15-24세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Lou et al., 2012)에서 인터넷보다는 전통적 영상물을 통해 음란물을 보았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인터넷 보급정도와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Lou 등(2012)의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보았을 때 성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Lee와 Cho (2007)는 인터넷 음란물이 성행동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발달시켜 성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 접근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태도 점수는 2.9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oi와 Ha (2004)의 3.09점과 비슷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Eo, Lee와 Choi (2003)의 연구에서 나온 2.2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태도 하부영역 중 결혼관만이 성경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결혼과 성이 분리된 세태를 잘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경우 성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의 성태도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성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건강 문제 해결과 더불어 건전한 성문화 창출을 위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대상자 중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41.6%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Ha (2004)의 연구에서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1.6%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20%에서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oi와 Ha (2004)의 14.9%에 비해 높은 결과로 사랑과 성교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대학생

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관계시 피임을 항상 하는 경우가 43.1%로 반 이하이며 48.1%는 피임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고 응답하였고, 8.8%는 피임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병에 걸릴 위험성과 원하지 않은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화하는 성행태로 인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준비 안된 임신, 낙태, 성병 등 건강을 해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와 성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태도는 종교가 없을 때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et al., 2003; Oh, 2003)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 주거형태가 자취인 경우 성태도가 더 개방적이었으며, 성경험이 있다는 보고자의 36.3%가 자취인 반면 성경험이 없다는 보고자는 18.7%만이 자취 증으로 이는 Kim 등(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하지만 Nam (1999)의 연구에서는 자택에 사는 학생들의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거에 따른 대학생들의 성개방성 정도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성에 대한 태도는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주거환경과 가족과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Rink et al., 2007) 등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겠다.

음란물 노출력의 경우, 음란물 노출 시기가 어릴수록 성태도가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성태도가 부정적이며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성태도를 보이고 있었다(Lo & Wei, 2005; Paek & Chaung, 2006). 따라서 음란물 첫 노출 시기가 빠를수록 음란물 이용이 많고, 급진적 성관계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Shim, 2010) 성지식과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어린 시기에 음란물에 노출되었을수록 더 많은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월 평균 수입이 많은 경우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경제상태가 중인 경우 성교 경험이 많이 나타난 Nam (1999)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성별은 성태도와 성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Zuo et al., 2012)으로서 남녀 간에 성건강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를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성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 등(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로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남녀간의 교제가 빈번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에 따라서는 성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술체육계열에서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 등(2011)의 결과와 같다.

본 연구에서 첫 음란물 노출 시기는 성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 등(2011)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때

처음 음란물을 접촉한 경우 성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Lou 등(2012)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매체보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노출 시 성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노출 시 유의하게 높은 성경험이 있었다. 인터넷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스팸메일이나 인터넷 배너 등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될 수 있게 되었다. 어린 나이 일수록 성의식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어린 시기에 인터넷 음란물 노출로 인해 만들어진 올바른지 않은 성의식은 성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음란물에 조기에 노출된 대상자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기에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된 대상자에게 중재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이 있겠다.

대부분의 음란물은 성적 환상만을 주고 성적 행동에 대한 결과나 건강한 성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L'Engle, Brown, & Kenneavy, 2006), 음란물의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요즘 자라나는 세대는 스마트폰 세대로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노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에의 접근 제한이 어려운 만큼 인터넷을 통한 올바른 성건강 정보제공 등 유익한 웹의 개발 등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겠다. Choi와 Ha (2004)의 연구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존의 성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 친근한 웹이나 메신저 혹은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성건강 전달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경험을 알아보고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성건강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인행동이나 태도를 밝히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성태도나 성경험에 대한 보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 연구는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건강 중재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대학생의 음란물 노출력과 그들의 성태도 및 성경험을 분석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전체 대상자의 45.7%가 음란물을 중학교 시기에 처음으로 접하였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의 41.6% 학생들이 성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성태도는 종교 유무, 학년, 주거형태, 음란물 첫 노출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경험은 성별, 학년, 연

구, 거주유형, 월용돈 정도, 음란물 첫 노출시기 및 음란물 노출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란물 첫 노출시기와 성태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음란물 첫 노출시기와 성경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건강 중재 시 남학생, 고학년, 자취여부 및 월 용돈 등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음란물 노출력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음란물 노출 시기와 종류는 성태도 및 성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특히 어린 시기에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된 대상자에게 중재의 우선 순위를 둘 필요성이 있다. 추후에 음란물 노출에 따른 구체적인 성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중재 방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lbamon (2011, October 14). *Press release*, Retrieved September 17, 2012, from http://www.albamon.com/service/bodo/notice_read.asp?news_no=379&page=5&s_type=H&s_query=&class=&pagesize=20
- Brcar, P., & Zvezdna Dernovsek, M. (2009). Validation of questionnaire estimating predictors of behavior intention to engage in first sexual intercourse among eighth-grade pupils. *Croatian Medical Journal, 50*, 483-491.
- Chang, S. B., Kim, S. Y. J., Han, I. Y., Park, Y. J., Kang, H. C., & Lee, S. K. (2001).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of coitus of teenage gir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921-931.
- Choi, M. I. (2009). Determinants on the exposure to interne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2), 49-69.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 318-330.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 Ho, S. M. (2009).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S. J., Moon, S. T., & Kang, H. S. (2011).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434-443.
- Kim, Y. H., Eo, Y. S., Lee, H. Z., & Choi, S. Y. (2003). A study of sexual attitude of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6*, 115-126.
- Kim, Y. J. (2010).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fter exposing internet explicit materials associated with personal factor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24*(6), 45-84.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0). *Internet coefficient of utilization and the tendency of internet user*. Retrieved October 10, 2012, from <http://www.kisa.or.kr/public/library/etcView.jsp?regno=017671&searchType=&searchKeyword=&pageIndex=2>
- L'Engle, K. L., Brown, J. D., & Kenneavy, K. (2006). The mass media are an important context for adolesc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 186-192.
- Larsson, M., Tyden, T., Hanson, U., & Haggstrom-Nordin, E. (2007). Contraceptive use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Swedish high school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Contraception & Reproductive Health Care, 12*, 119-124.
- Lee, I. S., & Cho, J. Y. (2007).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2), 59-68.
- Lee, S. H. (2004). *Undergraduate students' sexual behavior and influencing factors :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Lo, V. H., & Wei, R. (2005).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Taiwanese adolescents'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9*, 221-237.
- Lou, C., Cheng, Y., Gao, E., Zuo, X., Emerson, M. R., & Zabin, L. S. (2012). Media's contribution to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fo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three asian citi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0*(Suppl), S25-S36.
- Ma, Q., Ono-Kihara, M., Cong, L., Xu, G., Pan, X., Zamani, S., et al. (2009). Early initiation of sexual activity: a risk factor fo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HIV infection, and unwanted pregnancy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BMC Public Health, 9*, 111. Retrieved September, 15, 2012, from <http://www.biomedcentral.com/1471-2458/9/11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A fact-find of induced abortion, Press release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trieved November, 5, 2012, from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59118&SEARCHKEY=TITLE&SEARCHVALUE
- Moon, S. H.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udity in mass media on the youth's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Nam, M. H. (1999).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10*(1), 239-251.
- Nam, Y. O., & Lee, S. J. (2002).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cyber-sex addiction, exposure to cyber obscenities and cyber sexu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3), 185-212.
- National Police Agency (2012). *The present condition of occurrence on five largest crime*. Retrieved September, 2, 2012, from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3_01.jsp#none

- Oh, H. K. (2003). A study of knowledge, attitude and needs for education on sex of Korea female students in colleg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 163-178.
- Paek, K. S., & Chaung, S. K. (2006).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related factors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17, 376-386.
- Rink, E., Tricker, R., & Harvey, S. M. (2007). Onset of sexual intercourse among female adolescents: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depression, and ecological fact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398-406.
- Seong, H. G. (1996).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Research Bulletin of Catholic University*, 52(1), 207-229.
- Shim, J. W. (2010). The role of timing to exposure to pornography in what adolescent boys and girls think about sexual issues. *Korean Women's Communication Association, Media, Gender & Culture*, 16, 75-104.
- Sohn, A. R., & Chun, S. S. (2005). Comparing sexual attitude, sexual initiation and sexual behavior by gender in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18, 73-100.
- Zuo, X., Lou, C., Gao, E., Cheng, Y., Niu, H., & Zabin, L. S. (2012).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in three Asian cities: Effects of gender-role attitud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0(3 Suppl), S18-S25.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Kim, Eun Man¹⁾ · Yu, Su Jeong²⁾ · Song, Mi Ryeong³⁾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3)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oseo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and examine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in order to develop an effective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in May, 2012 from 385 students attending 3 universities in Korea. An independent t-test and ANOVA were us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with regard to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Results:** Sexual attitude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timing of first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p < .001$). Intercourse experi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iming of first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p = .016$) and type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p = .032$).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first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and sexual attitudes ($p < .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irst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and intercourse experience ($p = .017$).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managing the sexu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Attitude, Intercourse, Sexual behavio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Academic Research fund of Hoseo University in 2012(2012-024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Mi Ryeong

Department of Nursing, Hoseo University

165, Sechul-ri, Baebang-eup, Asan-si, Chungnam-do, 336-795

Tel: 82-41-540-9531 Fax: 82-41-540-9558 E-mail: songmr@hoseo.edu